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 운 성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wsbaek@cdi.re.kr)

목 차

< 요약 >

- I. 시작하며
- II.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 III. 22개 신성장동력과 충남산업의 연관성 검토
- IV. 충남의 대응전략

《요 약》

-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100여년 이상을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30~40년 만에 실현하였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에 착수하여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금번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은 과거 유사한 사례와는 달리 민간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그리고 새로운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이번 발굴된 신성장동력산업은 기존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그린에너지 발전계획,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등 관련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추진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산업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따라서 이러한 정부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충남의 산업여건을 상호 분석하여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금번 발표된 22개의 신성장동력산업은 충남이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정책의 방향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산업인프라와도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끌어 갈 신산업분야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은 지역 소재의 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충남은 지자체의 산업정책적 입장에 있어 신성장동력산업과 충청권 선도산업과의 연계속에서 관련 산업과 기술들이 상호 파급될 수 있도록 동시적인 산업육성 정책의 모색이 필요함
- 둘째, 금번 발표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에 있어 제도개선 부문과 R&D부문이 가장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지역차원에서는 관련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수집·분석하여 지역차원의 세부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함
- 셋째, 신성장동력산업은 기업중심으로 사업추진이 예상되므로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컨설팅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성장동력 추진사업에 대해 도내 기업의 연계 및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에 따르면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과 도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산업을 제외하고, 도내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분야를 선택하여 중장기적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기초 연구 및 지원이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본 정책의 세부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역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음

I. 시작하며

- 실용정부는 지난 6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및 육성에 착수
- 금번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은 과거 유사한 사례와는 달리 민간주도로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그 리고 새로운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지난 9월 22일 신성장동력기획단과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에 서 대통령주재 보고회를 개최,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건의함
- 정부는 기획단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범국가적인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에 있음
- 또한 이번 발굴된 신성장동력은 기존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 그린에너지 발전계획,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등 관련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음
-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충남도차원의 산업 및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신성장동력기획단이 건의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 대한 정책내용 분석과 현 충남의 산업여건을 상호 분석을 통해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함

II. 신성장 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¹⁾

1. 추진배경 및 수립경과

-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산업발전을 이루었지만, 다가오는 또 다른 60년,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함
 - 금번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은 과거 유사한 사례와는 달리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에 대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 그리고 새로운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
- 금번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은 민간 중심의 「신성장동력기획단」을 발족하여 민간주도로 행해진 연구임
 - 민간 중심 신성장동력기획단 발족 ('08.3.28)
 - 기획단 산하 4개 분과, 18개 소위원회에 약 36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 참여
- 본 과제 발굴은 아이디어 공모 및 공개토론회, 업종별 단체·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 후보분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
 - 기획단 자체 분석, 민간 수요 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한 400여개 후보군에서 1차로 63개 선정 (6. 30)

1) 본 내용은 지난 9월 22일(월)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브리핑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내용임.

- 공개토론회, 업종별 단체·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후보 분야의 전반적 적정성 검토 (7~8월)
 - 미래기획위와의 합동 워크샵(7. 10), 기업 간담회(8. 19), 공개토론회(9. 3),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9. 4) 등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정부에 건의 (9. 22)
- 정부는 기획단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범국가적인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

신성장동력기획단 단장 : 서남표 KAIST 총장				
분과	에너지·환경산업	주력기간산업	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위원장	SK에너지(주) 구자영 사장	호성기술원 성창모 원장	서울대 한민구 교수	산업연구원 오상봉 원장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오션 ■ 신재생에너지 ■ 해외자원·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소재 ■ 수송 ■ 기계·항공 ■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 ■ 로봇 ■ 나노 ■ 의료·바이오 ■ 통신·방송 ■ 부품·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 S/W, e러닝 ■ 전사·디자인·패션·패키징 ■ 컨설팅·엔지니어링 ■ 시험분석연구개발

※ 금융, 국방, 문화·관광 등은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소관 부처별로 추진중

2. 신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주요내용

1) 신성장동력 발굴 결과

-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기획단은 ‘성공가능성’,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하여 6대 분야 22개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제시

〈표 1〉 6대 분야 및 22개 신성장동력²⁾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에너지·환경 (6)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수송시스템 (2)	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
New IT (5)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 (4)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바이오 (1)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3)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 기후 변화, 고령 사회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 에너지·환경, 바이오
- 세계시장 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 고려 :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 일자리창출과 타 산업 파급효과 고려 : 지식서비스

2) 과학기술 기본계획(8.12), 국가에너지 기본계획(8.27), 그린에너지 발전전략(9.11),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9.18) 등 관련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

2) 단계별 추진방향

-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제시

〈표 2〉 단계별 추진전략

단기 (5년 이내 성장동력화)	중기 (5~10년 이내 성장동력화)	장기 (10년 이후 성장동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 문화 콘텐츠 ■ 디자인 ■ 소프트웨어 ■ 반도체 ■ IT융합 ■ 선박해양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무선통신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LED 조명 ■ 태양전지 ■ RFID/USN ■ 원전 플랜트 ■ 디스플레이 ■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₂ 회수 및 자원화 ■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 신소재·나노융합 ■ 로봇 ■ 해양 바이오 연료 ■ 무공해 석탄 에너지 ■ 그린카
실용화 기술개발 및 투자환경 조성	핵심기술 선점 및 시장창출	원천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

- 독자적인 기술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뿐 아니라, 기술간 융합과 산업간 동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상승효과 기대

3) 新성장동력 비전 및 전망

- 지식기반 경제, 신기술 융합화, 에너지·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모델 정착
 - 좋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표 3〉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지표 전망

구 분	2008년	2013년	2018년
수출액 (당초 총수출액 대비 비중)	1,208억불 (27.7%)	3,069억불 (45.8%)	7,954억불 (77.2%)
일자리 창출 (‘08년 대비 증가)	170만명 (-)	258만명 (88만명)	396만명 (226만명)
부가가치 (당초 GDP 대비 비중)	116조원 (12.4%)	253조원 (19.5%)	576조원 (31.8%)

주1) 당초 GDP 추정(천억원, IMF) : '08년 9,344, '13년 13,005, '18년 18,100

주2) 당초 총수출액 추정(억불, 지경부) : '08년 4,355, '13년 6,700, '18년 10,300

* 「문화콘텐츠」는 제외된 전망치임

- 新성장동력에 향후 5년('09~'13)간 총 99.4조원 투자³⁾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문화 콘텐츠 제외)
- 정부 약 7.9조원, 민간 약 91.5조원
- * '09년 투자 소요 : 총 11.8조원 (정부 1.3조원, 민간 10.5조원)

Ⅲ. 22개 신성장동력과 충남산업의 연관성 검토

1. 충남의 전략산업 및 주요 기간산업

- 충남도내 경쟁력 있고, 향후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산업은 4대 전략산업
과 2개 기간산업으로 요약할 수 있음

3) 정부의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 미래지향적 인력양성, 공공수요에 기반한 초기 시장창출 등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가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이 더욱 중요

- 충남은 지난 2004년 수립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의 4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서북부권의 철강, 석유화학 등의 국가 기간산업 등이 충남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음

1) 충남의 4대 전략산업

- 충남은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충남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도내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있음
- 현재 충남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 및 세부 육성분야는 아래 <표 4>와 같음

<표 4> 전략산업 및 세부육성분야

전략산업	정책적 육성분야
전자정보기기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산업 ■ 차세대소자 제조장비산업
자동차 및 부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화 ■ 핵심첨단 자동차 부품 기술의 자립화 ■ 산학연 연계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첨단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문화산업 기반확충 ■ 특화분야 기업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 핵심기술개발 및 콘텐츠 제작 ■ 기업요구 실무형 인력 공급 활성화
농축산바이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생명공학기술, 공정가공 ■ 인삼약초바이오산업-가공기술, 생명공학기술 육성 ■ 동물바이오산업

자료 : 충청남도·충남전략산업기획단, 「지역산업진흥계획」, 2007.

2) 충남의 주요 기간산업

- 상기의 4대전략산업 이외 충남은 국가기반산업인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석유정밀화학산업과 당진주변의 철강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발달되어 있음

■ 석유정밀화학산업

- 현재 충청남도의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공장이 위치
- 천안, 아산지역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화학 관련 산업체와 비금속관련 산업체가 500여개 이상 입지되어 있어, 도내 주요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철강산업

- 충남의 서북부권인 서산·당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철강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이러한 철강분야는 디지털전자기술과 시스템 기술, 초미세가공기술을 복합적으로 응용한 최첨단 제품의 개발이 예상되는 분야이며 전자, 금속가공, 기계 부문과 밀접한 산업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2. 산업연계 주요 추진사업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

-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시작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행정도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하였고, 정부의 주요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중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식자본과 원천기술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과학창조거점지역으로 세계적인 두뇌가 모일 수 있는 최고의 과학연구 환경(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조성해 과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초과학·비즈니스·문화예술이 결합돼 새로운 과학 ‘한류’의 블루오션을 창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위상을 갖는 국책사업임
- 핵심내용으로는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가칭)’, ‘미래장비개발센터(중이온가속기)’, ‘세계지식교류센터’, ‘지식융합센터’ 등이 있으며, 2008년 초에 시작하여 2012년까지 가속기 시운전, 201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특별법」과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설립법」 등 2개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

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일원, 경기 평택시, 화성시 일원에 5개 지구 총 5,505만㎡으로 2008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개발 사업을 확정·고시했고, 7월 22일 충남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개청식을 가짐

-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High-Tech Industry)의 국제협력거점 조성'으로 생산시설과 R&D기반, 첨단산업클러스터, 지식네트워크가 복합된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개발목표로 함
- 주요 도입기능은 첨단산업, 국제물류, 국제업무·상업, 관광위락, 교육·주거 기능이며, 송악석문과 포승지구를 중심으로 핵심 거점지구를 조성하고 첨단 기술산업과 R&D센터·연구소가 집적화된 첨단산업기술단지(Techno-police)를 조성하고, 동 지구에 국제부가가치물류시설, 국제업무시설 등을 집중 배치할 계획임

3)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사업

- 방위산업은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첨단산업중심으로 기업 등에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도 국방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국방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장기비전을 마련하고 있음
- 충남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국방관련시설의 집적지로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건, 즉 신속하고 비밀스러운 의사결정의 가능,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안정적인 지역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도내 전자정보기기 등의 첨단산업과 연계한 국방과학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에 있음

- 현재 충남지역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은 국방과학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국방기술상업화센터 및 국방복합기술센터의 설립, 국방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산업대학원 개설 등으로 구체화 되고 있음(구체적 계획 수립 중)

3. 충남의 전략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과의 연관성

1) 충남의 산업발전방향과 정부의 정책방향

- 금번 발표된 신성장동력산업의 내용은 충남 차원에서 산업정책 방향과 크게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은 없음
- 이미 충남은 신성장동력산업 발표 이전 성장동력산업과 충남산업잠재력 등을 토대로 1990년대 후반부터 미래전략산업을 준비해왔으며, 2004년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음
 - 또한 국가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역시 지속적인 관리와 육성을 해오고 있음
- 이러한 4개 전략산업과 2개의 주력산업에 있어 충남은 산업간 상호연계를 가지며 성장하고 있음
 - 4대 전략산업 중 전자정보기기산업과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1차 밴더들이 이미 일정부분 지역 내 위치해 있으며, 국내 및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산업분야임

- 또한 전자정보기기와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상호 전후방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부품생산기반 등의 연결고리가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농축산바이오산업과 첨단문화산업은 충남도에서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집중적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농축산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충남도는 농생명바이오, 인삼약초바이오, 동물바이오의 3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화된 제조가공분야와는 달리 생산기반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다만 충북의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의학바이오산업이 발달해 있고, 대전의 연구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충남은 상대적 생산기반의 장점을 부각한 연계가 중요시 되고 있음
 - 첨단문화산업에 있어서도 도내 디지털콘텐츠, 게임·영상 등의 다양한 산업 육성을 시작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광역권 선도산업(안)에서도 충청권을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의학바이오분야로 제시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금번 발표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중 현재 충남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서비스부문이 가장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음

2) 신성장동력산업과 충남산업과의 연관성

- 최근 중앙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발표에 따라 충남의 전략산업과 주력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산업과 산업간 전후방 연계를 고려하여 산업 연관성을 검토

■ 에너지환경분야

- 먼저 에너지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지역차원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산업의 자원 및 설비기반이 될 수 있는 석유화학단지와 철강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지역차원의 참여에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수송시스템분야

- 이번 제시된 수송시스템에는 내륙수송분야의 Green Car와 해양수송분야로 나뉘어져 있음. 이중 해양수송분야는 충남에 있어서는 산업적 기반이 거의 없는 실정임
- 그러나 내륙수송분야에 있어 현대, 기아 등의 완성차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1차부품업체들이 함께 소재하고 있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Green Car의 중요 사업 중의 하나인 2차전지 등도 전자정보기기 산업과 밀접한 연계가 있고, 이미 생산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충북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New IT 분야

- 5개 신성장산업으로 구성된 New IT부문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안)에도 반영이 된 충남을 포함하는 충청권 주요 산업임
-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집적화되어 있으며, 주변 대학들도 이와 관련한 인력양성을 하고 있으며, 충남도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임

■ 융합신산업분야

- 융합신산업분야는 철강, IT, 정밀가공, 멀티미디어 등의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는 분야임
- 현재까지 충남은 전자정보기기산업과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연관 산업으로 일정기반이 갖춰져 있어 IT분야, 문화산업 등과 결합하여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산업분야임

■ 바이오산업분야

- 충남의 바이오산업은 동물자원, 식물자원 등의 생산기반으로서의 역할이 크며 향후 공정가공,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바이오분야는 광역경제권의 충청권 선도산업(안)분야로 3개 시·도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분야임

■ 지식서비스분야

- 충남의 지식서비스분야는 이번 신성장동력 발표에 있어 산업 및 연구개발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분야임
- 2004년 전략산업의 선정에 있어 충남에서 집중육성분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속성상 수도권에 밀집되는 산업으로 상당한 발전격차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부문으로 연계시켜 지역 및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융합산업화로 추진되어야 할 부문임

〈표 5〉 중앙정부와 충남산업과의 연관성 검토

산업정책		충남 4대 전략산업				충남 주력산업		광역권 선도사업 부문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전자	자동차	문화	바이오	석유정밀 화학산업	철강기계 산업	
에너지 환경 (6)	무공해 석탄에너지					○		
	해양 바이오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							
수송시스템 (2)	Green Car		●				○	
	선박해양시스템							
New IT (5)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차세대 무선통신	●	●					
	LED조명	●						
	RFID/USN	●						
융합신산업 (4)	로봇		○					
	신소재·나노융합		○				○	
	IT융합시스템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	○				
바이오(1)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			
지식서비스 (4)	소프트웨어	○		●				
	디자인			●				
	Healthcare	○			●			
	문화콘텐츠			●				

주) ●-전략산업 및 주력산업과의 직접적 연계, ○-전략 및 주력산업과의 전후방연계 등의 산업

IV. 충남의 대응전략

1. 충남산업정책의 기본적 방향

1) 광역경제권 및 22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동시적 접근

-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안)을 발표했으며, 9월 22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음
-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은 지역의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여 향후 국가 전체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책과제이므로, 향후 10년 이후 국가의 먹거리로서 발굴 중인 신성장동력 산업육성방안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임
 - 이에 따라 각 광역권별 선도산업(안)은 신성장동력산업군 발표 이후 신성장동력 산업군에 대한 각 지역의 산업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확정할 계획에 있음
- 이와 함께 9월 22일 발표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산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주요사업 내용임
 - 그러나 금번 발표된 내용은 기존까지 정부주도의 산업육성계획이었다면 금번 산업육성계획은 민간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기업중심의 사업추진이라는 차별성이 있음
 - 따라서 본 계획은 민간(기업)주도의 큰 틀에서 지역 내 기업 및 지자체 등의 참여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도 다소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충청권 선도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시적 접근방법이 필요
- 이를 위해 현재 수립중에 있는 광역권선도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수립에 있어 신성장동력산업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신성장동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부문별 실무형 기초연구 및 계획의 수행이 필요함

2) 세부적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서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참여

- 현재 발표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은 신성장동력기획단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6대 분야 22개 산업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중앙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세부적인 창출전략을 수립할 계획에 있음
- 또한, 본 계획은 범국가적인 신성장동력 창출 계획으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사업추진을 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역적 편중, 기업적 편중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또한 각 분야의 사업추진에 있어 일정부문의 생산설비와 기업 간 연계,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계고리를 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전문추진체계의 구축을 통해 전략적 계획수립을 마련할 수 있음

2. 신성장동력산업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1) 사업추진의 정책수단에 있어서의 대응방안 모색

- 현재 발표된 내용에 있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추진에 있어 제도개선, R&D(표준화), 국제협력, 시장창출, 기타 기반조성(민간투자유발), 인력양성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음
- 이중 가장 큰 부분은 제도개선 부문과 R&D부문이 가장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각 부문별 정책수단에 부합하는 내용에 대한 충남도의 현황을 수집 및 분석하여 세부적인 추진시책 마련이 필요함
- 먼저 제도개선부문에 있어서는 규제 등의 해제가 가장 큰 부문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각 분야별 기업규제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 추진과 연계하여 개선해야 함
- R&D부문은 신성장동력과 연계되는 도내 주요산업의 연구개발로드맵에서 필요한 연구기술수요를 조사해 이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그룹 및 지원방안 강화

- 9.22일 발표된 「신성장 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은 민간이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계획에 있음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방안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신성장동력산업의 사업추진에 있어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성장동력 추진사업에 대해 도내 기업의 연계 및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위주인 수송분야에 대해 도내 관련 1차 벤더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기업의 육성 필요
 - New IT분야의 연구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들의 R&D와 협력강화 유도를 통한 신성장동력 사업참여폭의 확대와 실무지향형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 간 협력 유도
- 또한 지역 내 이루어지는 부문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문 산업과 전후방 연계되는 도내 산업에 대해 참여 및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괄적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3)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

-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에 따르면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단기(5년 이내 성장동력화), 중기(5~10년 이내 성장동력화), 장기(10년 이후 성장동력화)
 - 그리고 현재까지 제시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향후 5년간('09~'13)간 총 99.4조 투자 소요(정부 7.9조원 / 민간 91.5조원)될 예정에 있음

- 또한, 금번 발표된 22개의 신성장동력산업에는 충남의 4대전략산업 및 주력 기간산업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음
- 따라서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과 도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산업을 제외하고, 도내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분야를 선택하여 중장기적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기초 연구 및 지원이 필요
 - New IT 분야의 일부와 융합신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등을 비롯하여 도내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임
 - New IT, 바이오산업은 광역권 선도산업(안)으로 제시되어 현재 충청권 3개 시도가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하여 추진
- 이와 함께 현재 제시된 중·장기 과제 중 도내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부문을 선정하고 그와 관련한 기초연구와 참여기반 조성이 필요
 - 이를 위해 산업부문별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지역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초분야의 공동연구수행과 중장기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또한, 현재 충남도의 산업주요관련 정책입안에 있어 신성장동력 분야의 아이템을 접목하여 계획수립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중이온 가속기 설치 등에 있어 바이오분야에 직접적 접목이 가능하며,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사업은 New IT분야와 융합신산업분야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방위산업의 경우는 기업에서 상용화되는 기술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통해 도내 기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함

◆ 참 고 자 료 ◆

1. 강영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과제, 충남리포트 제3호, 2008.2.
2. 신성장동력기획단,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브리핑 참고자료, 2008.9.
3. 송두범·강영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충남리포트 제5호, 2008.5.
4. 이관률,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충남리포트 제6호, 2008.6.
5.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의 주춧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2008.8.
6.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과 산업정책, 통합학술대회 특강자료, 2008.8
7. 신성장동력기획단, 홈페이지(<http://nge.itfind.or.kr/>)

백운성, wsbaek@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팀 책임연구원

Tel. 041-840-1163